

저탄소·친환경 ESG 경영으로 지역상생 이끈다



정승일 사장

1.5GW 규모 신안 해상풍력 추진
석탄발전 가동 줄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우수 5년 연속 수상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시범 운영
에너지밸리 5년간 500개 기업 유치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 도약



정승일(왼쪽) 한전 사장은 지난달 전현희 국민의권의 위원장과 협약을 맺고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 최대 에너지기업 한국전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저탄소·친환경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초에는 'ESG 위원회'를 출범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5년 연속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1대 사장으로 취임한 정승일 한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7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공급체계 혁신을 담당할 전력혁신본부를 신설하며 파격적 인사를 단행했다. 신설된 전력혁신본부는 분산됐던 계통운영전략 수립, ESG 경영 확산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해 수행한다. 산하에 탄소중립전략처와 지속성장전략처를 뒀다.

한전의 ESG 경영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지역상생'으로 축약된다.

◇'신재생에너지 첨병' 신안 해상풍력=한전은 1.5GW 규모 신안 해상풍력 사업개발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계통 수용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안을 필두로 전북 서남권(400MW), 제주 한림(100MW) 등 대규모 해상풍력을 주도한다.

한전은 해상풍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한전의 직접 사업수행 기반을 마련했다.

한전을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지난 2019년 7월 'RE 3020' 기본계획을 세우며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다짐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한전 5.8GW, 발전사 35.4GW 등 총 41.2GW 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자는 내용을 담는다.

영남-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세계 최대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단지 추진(98MW 규모)과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60MW) 등이 대표적이다.

한전은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사업자,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들은 새 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 한전은 친환경 개폐기를 확대 적용하고, 발전사들은 겨울철 석탄발전소를 적게는 8기 많게는 15기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그 결과 전력그룹사는 지난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80만 t 감축했다. 이는 전년보다 6.3% 감소한 수치다.

한전은 지난 연말 세운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사옥'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등을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전의 저탄소·친환경 정책은 해외에서도 확고해졌다.

지난해 10월 신규 해외 석탄화력 개발을 전면 중단하면서 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해외사업 개발 방향을 전환했다. 태양광과 해외 풍력시장으로 본격 진출하고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화력을 대체할 저탄소·청정 가스복합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다변화했다.

한전의 해외 신재생 발전용량(지분용량 기준)은 673MW 규모로 성장해왔다.

이번 신규 석탄 개발 중단으로 2050년 이후에는 기존 운영하는 해외 석탄화력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운영 중인 해외 석탄화력도 국제 환경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전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CDP 한국위원회 주관 '2020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

이 시상식에서 한전은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한전은 탄소경영 분야 우수 기업임을 증명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0년에 설립돼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비영리 기관이다. 96개 국가 9600여 개 기업들의 기후변화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노력 등을 공개하며,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 요인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질적 성장 '글로벌 허브' 도약=올해는 에너지밸리가 그동안 '양적 성장'을 마치고 '질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첫해다.

에너지밸리는 지난 2015년부터 5년여 동안 500개 넘는 기업을 유치하며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에너지 신산업 위주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구축하는 '스마트 에너지 허브'다.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 103개사의 매출 증가액은 총 121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에너지밸리 기업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한전은 분사 나주 이전을 계기로 차세대 전력산업에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세부적으로는 신산업 51%,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27%, 전력기자재 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투자 협약금액은 2조원이 넘으며, 1만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밸리는 오는 2025년까지 2단계 질적 성장을 하며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입주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이전 등을 받으며 체계적 기업 지원 지속한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공공 연구기관, 부설 연구소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할 계획이다.

한전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에너지 창업기업을 300개사 넘게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화상 수출상담·바이어(구매 담당자) 연계를 진행해왔다.

한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수준진단·평가제도이다.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을 도입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한전은 지난 2019년 윤리준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을 전사 구축하며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일 사장은 "윤리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며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기에 에너지 모든 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술혁신, 과감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도전을 해야한다"며 "전력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신사업을 개발·상용화하고 국가와 국민, 협력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저탄소·친환경을 내건 한국전력의 ESG 경영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지역상생'으로 요약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전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CDP 한국위원회 주관 '2020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